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예술작품은 한없는 외로움이기에,
예술작품에 접근하는 데비평만큼
쓸모없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작품의 뜻을 포착하고,
느끼고,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릴케-



[제 1독서] 말라 3, 19-20-

[화답송] 시편 98(97), 5-6, 7-8, 9(◎ 9 참조)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 하여라.◎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제 2독서] 2테살 3, 7-12

[복음 환호송] 루카 21, 28 참조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복 음] 루카 21, 5-19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44 입당 44	봉헌 212 220 봉헌 212 220	성체 159 167 성체 159 167	파견 436 파견 436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33주일(11월 17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 24일)		대림 제 1주일(12월 1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허세실리아(홍숙)	정스텔라(애리)	조레지나(선덕)	김글라라(순희)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김안드레아(찬곤)	구미카엘(창희)	이바로로(명국)	이베드로(기만)
제 2 독서	최분다(수영)	서테레사(춘애)	김글라라(순희)	김테레사(승희)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무서워 하지마라.

지난주에는 초강력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의 타클로반을 휩쓸고 지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곳곳에 시신 방치… 폐허가 된 필리핀 타클로반**” 이라든지 “**길가에 둥구는 시신, 거대무덤에… 생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다고요?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타까움을 구체적인 동참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웃이 겪은 비극이고 고통이며, 장차 언젠가는 내가 겪을지도 모를 일이기때 더욱 공감이 갑니다. 어서 빨리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되고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연중 제33주일 오늘의 전례 말씀에서는 종말을 지칭하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봉독됩니다. 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더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과 종말을 예표하는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루카21, 11)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1독서인 말라키 예언서는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말라3, 19)는 그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한 기상악화로 세계 곳곳에서 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실로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일어

나는 큰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각종 전쟁과 테러, 핵무기 위협과 핵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말현상을 연상하게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은 마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루카21,8)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후반부에 전해지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말라3,20)와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19)는 말씀입니다. 결국 종말에 관한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들은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만 말고 또 다시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개미와 베짖이

개미와 베짖이는 이웃에 함께 살았습니다. 부지런한 개미는 먹이가 없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일했고, 베짖이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개미를 비웃기라도 하듯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어느덧 매섭게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며 먹이를 쌓아둔 개미는 따뜻한 집안에서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름을 보낸 베짖이에겐 비참한 현실과 때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 다름 바 없는 성전파괴,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고하는 커다란 재앙과 혼란, 전쟁과 박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리는 이습우화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상황은 루카복음이 저술되던 시대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파괴와 급격한 기후변화, 유럽의 금융위기와 미국의 국가 부도위험, 10년 넘게 지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해일, 북한에서의 인권탄압과 종교박해 등은 인류에게 빙하기처럼 닥쳐올지도 모르는 냉혹한 미래를 경고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어차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면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베짖이처럼 살아야 할까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과 가족의 안녕이 최고의 가치일 뿐, 가까운 이웃들의 불행이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먼 나라의 자연재해나 전쟁 등은 관심 밖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조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감으로 어떠한 삶의 기쁨도 즐길 여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마침 평신도 주일로서 세상 안에서 현세 사물을 비추고 관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 받은 평신도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2012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자 수는 5,361,369명이 고, 성직자 수는 4,788명이니 교회구성원의 99.9%가 평신도인

셈입니다. ‘개미’ 군단을 떠올리게 하는 이 수치는 평신도 역할의 비중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땀과 노력과 희생만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18) 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베짖이의 낙천적 여유와 더불어, 은근과 끈기의 정신으로 이 땅의 복음화와 하느님나라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당신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눈물겨운 바람목에서도 당신께
꽃 한송이 바치는 그 마음을

글_ 정지원 루치아, 그림_ 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를 해결해 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전보다 한층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셨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나 상사,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해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슨 일이든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내가 있기까지 키워 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부모님이 있었고, 직장에서는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인도해 준 선배, 상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변함없이 든든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간절히 청하면 꼭 들어주십니다. 만약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나 아직 해야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꼭 하고, 또 맡은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성향이라 “조용히 일을 잘 저지른다.” 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때는 다소 무리한 일을 벌여서 주위의 걱정을 듣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사서 고생을 한다.” 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일을 벌여 놓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가톨릭언론인협회의 회장직을 제의받았을 때, 저는 신앙심도 미약하고 능력도 부족하여 여러 차례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회장직을 맡지 않고는 안 될 지경이 되어 “어쩔 수 없으니 뜻일은 하나님이 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활동을 하는 동안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는 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라면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잘 해결될 거야.” 하는 근거 있는 낙관론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우리 힘만으로 되는 일은 없다.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꼭 해결해 주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 7,7)

김태식 토마스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머 무 림

만일 젊은이들이 성, 사랑, 삶 전체의 참된 의미와
진밀한 상호 연관성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참된 인간 생명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7항

가톨릭전례

“ ‘일괄 사죄’ 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더

합리적인 고해성사가 아닌가요? ”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대축제이며, 뒤이어 오는 새해의 희망을 키워가는 행복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천주교 신자는 한 가지 마음의 짐을 가슴에 담고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탄 판공, 고해성사가 그 부담입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용서 은총을 전해주는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감추고 싶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낱알이 고백하려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피해 가거나 부담이 조금 덜한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가끔 주위에서 ‘일괄 사죄’ 라는 공동체 예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일괄 사죄’ 는 개별적 고백 없이 사제가 공동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사죄경을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일괄 사죄’ 를 오직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하나는 전쟁이나 배가 침몰하는 상황처럼 “죽음의 위험이 임박하여 한 사제나 여러 사제가 고백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 (「가톨릭교회교리서」 1483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참회자들의 수는 너무 많고 고해사제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서는 ‘일괄 사죄’ 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일괄 사죄’ 가 베풀어질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교가 판단하며, 큰 축제나 순례 때 고해사제에 비해 참회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일괄 사죄’ 가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교회법」 961조 참조)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 성탄 판공이 일괄 사죄의 이유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괄 사죄’ 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일괄 사죄’ 가 고백의 부담을 피하고 죄의 용서를 쉽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환자의 수가 많다고 똑같은 처방을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며,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픕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호흡이 곤란해 금방이라도 질식할 위험에 처한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은 분명한 처방을 내려주며, 그 처방은 치유의 기쁨을 약속합니다. 진실하면서도 개별적인 죄의 고백은 그만큼 영혼의 빠르고 건강한 치유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환자 치유의 방식이듯이 “개별 고백은 하느님에 대한 화해와 교회에 대한 화해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형식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484항)

주님께서 걸으신 골고타 언덕을 오르지 않고서 부활의 기쁨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 고백에 따른 부담을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담은 보다 더 큰 것, 곧 죄의 용서를 통해 내적인 자유와 기쁨을 가져오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싸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요한 16,21)

두려운 진통의 시간 다음에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이 오듯이, 고해성사에서 죄 고백의 두려움을 넘어서면 죄에서의 해방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길을 돌린 탕자의 용기는 자유의 시발점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요한 16,20)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461-1484항

서울대교구 사목국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5	188	31	304
헌 금	\$596	\$1,080	\$20	\$1,698

< 교무금 > \$8,120

지영남(7-12) 조상희(11) 권영현(11-12) 양인심(12)
 정병구(11-12) 김영순(11) 유춘성(7-10) 전숙희(11)
 유경돈(7-10) 김순이(11) 김관숙(11) 염명련(11)
 허순구(11-12) 김민규(5-8) 소명환(11-12)
 정병섭(10-12) 이진열(11-12) 허동원(11) 전문자(11)
 고영남(6-12) 김정복(11) 변귀태(11-12) 이명란(11)
 김종성(9-11) 구창희(1-12) 성동화(9-12)

< 성소후원금 > \$150

정병구(11-12) 전숙희(11) 김순이(11)
 소명환(11-12) 조진행(11-12) 김정복(11)
 이명란(11)

< Bishop's Appeal > -

지영남(1-12) 정일양(7-12)

< 감사헌금 >

유병욱 \$2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11월 17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익명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연옥영훈들	순교자들의 모후 Pr.
	연	부모님	정스텔라(애리)
	연	부모님	정베드로(창희)/아가다
	연	양가 부모님들	김데레사(정복)
	연	김라파엘/김요셉	김데레사(정복)
	연	고아오스딩/조상님	고요한(형권)
	연	황씨네 조상님	황안나
	연	안안나(옥순)	안마리아(은순)
	연	백공시당시아	김아네스
	연	양베드로(봉남)	김엘리사벳(영희)
	연	모든 연령들	김케네스
	연	부모님	차루시아(영화)
	연	박길자/박영욱	차루시아(영화)
	연	차예로니모(창섭)	차루시아(영화)
	연	조동림	조데레사
	생	김엘리사벳(영희)	김아네스(순이)
	생	윤엘리사벳	김아네스(순이)
	생	조베드로(찬구)가정	조데레사
	생	조요셉(승구)가정	조데레사
	생	이세실리아(정선)	유안셀모
	생	이마리아 가정	이마태오(영기)
	생	박요한(중영)	6구역 일동
11월 19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11월 22일 금	연	조요셉	조마리아

~~~~ 오늘의 간식은 권영현 바실리오/이흥구 펠릭스 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앞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오늘은 김선류 타데오 신부님께서 8시미사와 교중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아울러 트라이벨리 성당의 성전건립  
기금 마련 2차 헌금 및 약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 2차 헌금 안내

17일 : 트라이벨리 성당 성전건립 기금 마련 헌금  
24일 :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대림절 성경 쓰기 : 시편 71장 - 150장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평협회의 : 11월 1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요셉회 : 11월 1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뜨개질사랑회 : 11월 1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
- \* 사목회의 : 11월 24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하상회 : 11월 24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임시사목회의

11월 17일(오늘) 교중미사 후 사제관 앞 회의실  
안건 : 신앙의 해 신앙상 수상자 심사

◆ 신앙의 해 성경쓰기 노트와 아침/저녁/목주 기도  
체크북을 11월 24일까지 성당 입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해 폐막미사 때 봉헌할 것입니다.

◆ 올해의 교우상 후보자 추천

수상 내역 : 추천서 참조  
시상일 : 12월 25일 성탄대축일 미사 중  
접수 : 후보 안에 있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까지 사무실에 제출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오클랜드 교구 성김대건 가톨릭 묘지 봉헌식

일시 : 11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 1051 Harder Rd. Hayward, CA

**11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 1-2장**

|       |               |                       |
|-------|---------------|-----------------------|
| 1 구역  | 11월24일(일) 6시  | 유인웅 다투트 맥             |
| 2 구역  | 11월23일(토) 6시  | 윤종진 엘리야 맥             |
| 4 구역  | 12월14일(토)6시반  | 이주황 요한 맥              |
| 5 구역  | 11월23일(토) 6시  | 이병렬 요셉 맥              |
| 7-1구역 | 11월30일(토) 2시  | 파운더스 룸                |
| 7-2구역 | 11월23일(토)5시반  | 이육경 글라라 맥             |
| 8-1구역 | 11월24일(일) 5시  | 유춘성데레사/강루시아           |
| 8-2구역 | 11월17일(일) 6시  | UC Village Cross Rd.# |
| 9 구역  | 11월23일(일) 6시  | 정현준 루치오 맥             |
| 10 구역 | 11월24일(일)12시반 | 교육관 106호실             |

◆ 오바마 케어 설명회

일시 : 12월 1일(주일) 8시 미사 후, 교중미사 후  
\* 질의 응답 후,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대림피정 안내

일시 : 12월 10일(화) 오후 7:30 - 10:00  
12월 11일(수) 오후 7:30 - 10:00

주제 :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강의 :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참가비 : 무료(간식 제공)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2013년도 약정하신 교무금을 연말 안에 모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